

가래

부활 제3주일

기초 자료

방을 떠날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예수 부활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지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도 2,23)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무법자들이 예수님 몸에 손 끝 하나

떨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며, 그런 이들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결국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내셨다.

구약의 증언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아니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6,10 인용)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난, 죽음, 부활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점을

구약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함

또한, 자기의 설교를 듣는 모든 이가 이 사건의 증인이라고 선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 주셨습니다."
(1베드 1,21)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희망은

하느님께서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상태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

엠마오

✓ 60 스타디온 = 대략 11 킬로미터

=> 중요한 것은 거리와 위치의 정확성 보다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다.

엠마오로 내리키리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루카 24,13)

=> 예수님께서 몸소 가시려는 곳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짝지어 보내시는 모습을 닮아 있다. (루카 10,1; 19,29)

✓ 남자 두 명의 증언을 중요하게 여긴 유대 관습

=> 오늘 복음은 시작부터 증언과 관련된 일이 일어날 것임을 보여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루카 24,15)

=> 당신의 수난과 죽음, 부활을 이해할 수 없어

계속 토론만 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신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늘 하시던 행위를 보고
그분을 알아본다.

오늘날 미사의 모습을 닮은 엠마오 사건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루카 24,27)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루카 24,30)

이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를 떠올리게 함

=> 미사를 봉헌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계심을 체험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이웃에게 달려가서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재현되는 사건이다.

나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처럼
미사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눈이 열리지 않아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토론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